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새고려신문</h1>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18년 5월 11일(금) ..(음력 3월 26일).. Пятница 11 мая 2018 г. № 18(116785)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지난 5월 9일 전 러시아가 대조국전쟁 승리 73주년을 기념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주요행사는 <포베다(승리)> 광장과 <슬라와(영예)>광장에서 펼쳐졌다. (이예식 기자 촬영)

5월 9일, 사할린 대조국전쟁 전승 73주년 기념

지난 5월 9일 전 러시아가 대조국전쟁 승리 73주년을 기념했다. 사할린 주 전역에서 집회, 시민행진, 군사 열병식 등에 5만5000여 명이 참가했다고 전해졌다. 이날 가장 큰 대중행사는 <불멸의 연대>시민행진이였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에 전 사할린에서 주민 2만여 명이 자신의 조상인 대조국전쟁 시 전사자의 초상화를 들고 참가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주요행사는 <포베다(승리)>광장과 <슬라와(영예)>광장에서 펼쳐졌다. 행사는 승리광장에서 1만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깃발그룹이 러시아의 깃발과 승리의 깃발을 든 행진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 아침부터 맑은 날씨는 명절 기분을 안겨주었다.

군 열병식에 참가한 군인들에게 제 68군단 드미트리 글루센코 사령관이 축하했다. 합동군악대는 애국가를 연주했다.

"1941년 6월 22일 독일과 그의 동맹국들은 선전포고도 없이 교활하게 소련을 공격했다. 붉은 군대는 모스크바 부근에서 적을 저지하고, 이들과 교전하며 베를린까지 밀고 들어갔다. 이 대규모 전투는 4년 동안 지속되었다. 승리하기까지 2700만 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았고 앞으로도 항상 기억할 것이다."라고

글루센코브 사령관이 강조했다.

사할린주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는 연설에서 "1945년 5월 9일은 국민들의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뜻깊은 날"이라며 "과시즘이 패배 후 바로 극동지역에도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작전과 쿠릴 상륙작전으로 남부사할린과 쿠릴열도가 해방되었다. 이 전투장에서 소련의 여러 공화국, 러시아의 여러 지역 군인들과 장교들이 참전했다. 이들은 여러 민족이였다. 그중 2000 명 이상이 섬지역 해방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바쳤다."고 했다. 주지사는 특히 전투와 노동전선에서 승리를 위해 공로를 세운 베테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현재 사할린 주에는 대조국전쟁 참전자, 노동전선 참가자 및 봉쇄되었던 레닌그라드 주민 1153명이 거주하고 있다.

축사 후 열병식이 이어졌다. 군인, 전투기기 퍼레이드가 있는 후 베테랑, 정부 관계자와 8000명의 <불멸의 연대>가 성화와 영웅기념단에 헌화하기 위해 영예광장까지 행진했다.

<승리>광장부터 <영예>광장까지의 고리키 거리에는 행사를 찾아온 수천 명의 남녀노소로 붐볐다. 대부분 게오르기 리본을 매고 손에는 승리 기념꽃인 카네이션을 들고 슬라와 광장으로

향해 목념하고 성화에 헌화했다.

이날 사할린주한인회,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주한인여성회 관계자들도 헌화식에 참여해 생화를 바쳤다.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도 이들과 함께 전승일의 슬픔과 기쁨을 나누었다.

<불멸의 연대>행진 이후 크고 작은 전승 기념행사들이 도시 여러 곳에서 펼쳐졌는데 많은 시민들은 가가린 공원, 레닌광장, 향토박물관 등을 특히 많이 찾았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전승일은 20시에 승리광장에서 열린 <로스그와르지아> 군악대의 공연과 22시에 불꽃놀이로 마무리했다.

또한 9일 아침에는 정교회 인노켄찌 모스콥스키 성자 성당의 감사에배 후 사할린 북부로 <추념의 자동차 릴레이>가 떠났다. 사할린주 사회원과 사할린주 민족협회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 행사에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도 참가했다. 사회원과 민족협회 회원인 그는 동료들과 함께 유즈노사할린스크-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까지 북부노선을 따라 이동했다. 사회활동가들은 돌린스크, 마카로브, 포로나이스크, 스미르니흐, 티몹스코를 거쳐 그곳에 있는 참전용사들의 추념비에 헌화했다.

(취재: 배순신 기자)

단신

국제간호사의 날을 앞두고

5월 12일은 국제간호사의 날이다. 이날을 앞두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안쿠지노브시병원에서 의료계 근로자들을 위한 과학 실용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컨퍼런스에 100여 명이 참가했고 그의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방 의료기관의 의료진들도 참여했다.

컨퍼런스에는 사할린주병원, 유즈노사할린스크 소아진료소, 사할린주소아병원, 코르사코브중양구역병원 간호사들의 발표가 있었다.

현재 사할린주에는 간호사 529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의료기관들에는 항상 새로운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사업의 주간' 진행

주중양도시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가 주최하는 제7회 <사업의 주간>이 진행된다. '사업의 날'을 맞이하여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일련의 주제별 행사에 참가 희망자들을 초대한다.

<사업의 주간>의 진행방식은 전례대로 진행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리게 될 행사에서는 원탁모임, 세미나, 개방된 문 등, 행사의 일환으로 사업가들은 개인사업의 성공사례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행사의 주요 목적은 사업, 행정부와 지역공동체와의 협력 개발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형성하는 데 있다.

올해 <사업의 주간>에는 시민들, 사업가들과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0개의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시청 공식 홈페이지 '도시사업' 부문을 검색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올라 있다. 행사 참가 지원자들은 사전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5월 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공식 폐막식을 열어 <사업의 주간>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7년 사할린 주정부 300명의 사업가 지원

사할린과 쿠릴 300명 이상의 사업가들이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받았다. 작년에 투자기획을 시행하는 기업들에 배당한 지원금의 총액은 5억4000만 루블리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사할린 주 개인사업가들에게, 지방 중소기업들의 창업과 사업개발의 목적으로 보조금 2억 400만 루블리를 지급했다.

투자자들에게는 재산세와 법인세 감면, 대출이자와 임대료에 혜택을 받는다. 조직의 자원공급망의 기술적 결합비용에 보상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장비 구입비 일부를 보상, 주요 산업 분야의 투자기획에 자본 투입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는 혜택을 받는다.

현재 기준으로 사할린 주에 약 2만8천개의 중소기업체들이 등록되었다. 이러한 혜택 속에 사할린 주민들은 사립 유치원을 개원, 패스트푸드점 개업과 개인 소규모 사업을 하기도 한다. 이들에게는 보증금과 대출금 외에도 사할린 주예산의 개입으로 지방자치 프로그램 경비의 보조금제도를 통해 지원된다.

새고려신문

2018년 하반기 신문주문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76루블리 2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대조국전쟁 노동전선 참가자 박 소피아 어르신

키가 작고 곱상한 외모의 박 소피아 할머니는 고려인이다. 올해 만 88세가 된 박 할머니는 연해주 울진스키구역 라트비아 마을에서 태어났다. 1937년, 그녀는 당시 7세였다. 다른 고려인들 처럼 스탈린의 명으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되었다. 다행히 그녀의 가족은 우즈베키스탄 스투네치르치크 구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어마한 양이었어도 가벼웠다. 작은 손으로나마 일을 빨리, 잘 하는 것이 그녀의 능력이었는지, 최우수 노동자 중 한 명으로 뽑혔다. 이렇게 2년 동안 노동전선에 힘을 바치고 2년간 그녀가 벌어들인 돈을 모두 전쟁 참전자들에게 바쳤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른들과 같이, 때로는 어른보다 더 많이 일했다.

가정사정으로 박 할머니는 3살부터 조부모(할머니·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부친은 강제 추방 전까지 블라디보스토크항구에 선박 선장이었다. 물론 스탈린의 억압을 당했다. 조부모와 함께 한 식구들은 많았다. 부친은 장남이었고 조부모들도 아직 젊었기 때문에 그녀보다 더 어린 삼촌, 고모들도 몇 명이 있었다. 조부는 "마음이 넓고, 아량이 많

은 사람이었다."며 전쟁 때 노동전선에서 복무했다고 했다. 일도 많이 하고 돈벌이도 하고, 많은 친척을 거두어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했다.

박 소피아는 학창시절에는 공부를 워낙 잘 하는 편이었다. 노동전선 때문에 수업을 계속 빠졌지만 학력시험에 참가해 동창생들과 함께 다음 클래스로 올라갔다. 2년이 지나 학교에 되돌아온 그녀는 8학년을 마치고 전문학교에 입학했다.

그녀는 24살에 대조국전쟁 고려인 참전자와 결혼했다. 장교 출신인 남편은 6살 위였는데 3년도 못 살고 두 달 된 딸과 아내를 두고 부상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다시 콜호즈에 가기도 하고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다고 추억을 더듬었다. 요리사도 하고 누에도 치고, 농사 등 가리지 않고 일에 뛰어 들었다. 그렇게 하는 일은 뭐든, 다 잘 되어 돈도 만만찮게 주머니에 들어오게 되었다.

1960년부터 박 소피아 할머니는 삶의 거의 3분의 2를 사할린에서 살고 있다.

친척의 소개로 할머니가 살던 타쉬켄트에서 사할린 조선 총각이 찾아왔다. 북조선 출신인 그는 배우자를 찾고 있었다. 사실 재혼할 마음은 없었고 타쉬켄트를 떠날 마음도 없었지만 한번 사할린에 가 보자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추운 2월에 사할린에 도착했다. 시어머니와 남편 가족

은 새 며느리가 마음을 바꾸지 않도록 처음엔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못하게 했다.

솔직히 말하면 따뜻한 지방과 깨끗한 대도시에서 살다가 사할린에 왔을 때 박 할머니는 "사할린에서 도망가고 싶었다."고 말한다.

차츰 적응되면서 딸과 아들을 낳고 돈벌이를 하기 위해 여러 일을 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사는 동안 친구들도 생기고 지인들도 많아졌다. 부지런한 편이라 또한, 아이들을 뒷받침해야겠다는 생각에 정년퇴직 후에는 시장에 나가서 장사하는 것도 배웠다. 그녀의 남편 조정상 씨도 아주 부지런했고 건설현장에서, 공장에서 우수 근로자로서 많은 표창장도 받았다. 박 할머니는 "남편이 착하고, 술도 안 마시고 내가 데려온 아이도 자기 아이들처럼 좋아하고 잘 챙겼다."고 했다.

남편은 1991년에 세상을 떠났다. 사망하기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 몸이 마비되는 바람에 4년간 누워있었다. 그동안의 수발을 든 것은 아내인 박 할머니였다.

남편이 사망한 후, 그녀는 1991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서 남편의 친척들과 만날 수 있었다. 좋은 만남이었고, 다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기회는 오지 않았다.

소련시대 때 박 할머니는 2-3년에 한 번은 꼭 우즈베키스탄을 찾았다. 그곳에 모친과 남동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몇 년

전에는 가족사정으로 거의 4년간 타쉬켄트에서 살던 적도 있었다.

그녀에게는 손주 넷에 증손주도 셋이 있다. 자녀들도 자리를 잘 잡고 손자들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지만, 박 소피아 할머니는 이들을 도울수 있으면 계속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아마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다.

2011년도부터 박 할머니는 빠짐없이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노인정을 다닌다. 같이 놀고 수다를 떨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 시간이 좋기 때문이다.

집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은 스타일이라 그녀는 사회복지센터의 연금자들을 위한 건강그룹에도 다닌다. 여기에는 이들을 위해 여러 수업, 행사, 박물관 견학 등 준비를 하는데 박 할머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또한 그녀는 이미 27년째 은혜교회의 교인이다. 교회가 하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교회가 갖고 있는 밭에서 친구들과 함께 파와 채소를 심고 가꾸며 교인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

전승일이 다가오자 박 할머니는 노동전선 참가자로 많이 바빠졌다. 이들을 위한 행사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박 어르신은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고 매니큐어를 바르고 지식인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필자가 기원하기는 오래오래 강건하게 사시고 손주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 것이다.

(취재: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 주민들 종합기념박물관 앞에서 '승리의 왈츠'를 춤추다

5월 7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승리의 왈츠' 댄스 행사가 열렸다.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쟁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승리' 종합기념박물관 앞에 모였다.

사할린국립대학 교육사업·사회문제의 부총장인 스웨틀라나 바리시니코와는 "이 행사는 국제적인 행사로서 러시아를 비롯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기타 국가들이 참가하고있다. 우리는 행사의 참가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사할린국립대학에서 리허설 진행했다. 올해 처음으로 '승리' 종합기념박물관의 지원을 받았다. 우리가 본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행사장으로 지목했던 박물관 측에서는 행사장, 음향장치, 탈의실 장소까지 제공해 줘서 정말 감사했다."라며 행사 진행에 대해 설명했다.

5월9일에 맞춘 행사는 올해 3번째 진행하고 있다. 대학생들, 학생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은 2년 동안 한결같이 행사에 참가해오고 있다. 금년에는 고정 참가자 외에 포로나이스크와 홈스크의 청소년들도 동참했다. 그들은 1개월간 비디오 자료를 보면서 춤 동작을 배우고, 행사 진행일에 다른 댄싱 커플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연령과 상관없이 행사에는 희망자 모두 참가할 수 있었는데 무용단 공연에 어린이들과 '전쟁의 자녀들' 사회단체 회원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

Сахалинцы станцевали "Вальс Победы" перед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ым комплексом

Танцевальная акция "Вальс Победы" прошла 7 ма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есмотря на пасмурную погоду,

перед мемориальным комплексом "Победа" собрались все желающие отдать дань уважения героям войны.

— Эта акция вообще является международной, и кроме России в ней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еще Белоруссия, Казахстан и другие страны. Мы объявили набор тех, кто хочет участвовать в этой акции, и репетиции проводились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 этом году нам впервые оказал поддержку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обеда". Они предоставили и площадку, и аппаратуру, и место для переодевания. Мы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ы им за это, потому что это, наверное, самое лучшее место, где могла бы пройти эта акция, — сказала о проведенной работе Светлана Барышникова, проректор по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работе и соци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СахГУ.

Мероприятие, приуроченное к 9 мая, проходит уже третий год. Два года подряд участниками акции были студенты, школьники, жите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этом году к постоянным участникам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молодежь из Поронайска и Холмска. Целый месяц они с помощью видеоматериалов изучали танцевальные движения, и только в день мероприятия смогл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другими танцевальными парами.

В акции смогл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се желающие, возраст не имел значения — в театрально-хореографической постановке были задействованы как самые маленькие жители области, так и участники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Дети войны".

<바다 친구들> 사할린 보드게임 출품

사할린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에서 어른과 아이들은 해양포유동물들에 관심을 가졌다. 사할린 주민들이 이 동물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서 자신의 바다 이웃들을 더 친근하게 알도록 돕는 보드게임을 제작하는 아이디어가 생겨났다.

대통령 장려기금재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 '해양 친구들' 기획의 일환으로 게임이 개발되어 500세트가 제작되었다.

8세 어린이용 <바다 친구들> 보드게임은 사할린주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동물들을 아이들에게 소

개한다. 놀이에는 23 마리의 해양동물들(고래류, 물개류, 수달류 등)이 등장한다. 놀이카드에는 사할린 해양포유류의 생태와 삶에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상자 안에는 2가지 놀이를 하는 기억카드와 주사위 놀이카드가 들어있다. 기억카드는 동물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놀이로 8세 이하에게 쉽고, 주사위 던지기 게임은 초등생을 대상으로 교사나 어른이 함께하여 지도하는 게임이다.

이 놀이는 아동단체들과 함께하는 사할린주 사회단체, 도서관, 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교사들은 이 놀이를 보급받기 위해 28-79-70 (11시부터 17까지)번호로 미리 전화하여 네벨스카야 거리, 14/2 번지 주소로 연락하면 된다고 '부메랑' 클럽 홍보실이 전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вышла в свет настольная игра "Морские друзья"

Работа с сахалинцами на раз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казала, что морские млекопитающие увлекают взрослых и детей. Сахалинцам хочется больше знать о них. Поэтому родилась идея сделать настольную игру, которая поможет школьникам поближе узнать о своих морских соседях.

Игра разработана и издана тиражом 500 экземпляров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Друзья океана" при поддержке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грантов.

Настольная игра "Морские друзья" рассчитана на возраст 8+. Она поможет детям узнать о том, какие морские млекопитающие обитают в вод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игре представлены 23 морских животных — китобразных, тюленей и куньих. Игровые карты содержат информацию о биологии сахалинских морских млекопитающих и о том, как на их жизнь влияют люди.

В коробке находятся карточки сразу для двух игр — для мемурины и "ходилки". Мемурина более лёгкая для детей — играя в неё, дети запоминают названия животных. А игра-ходилка предназначена для более старших детей. С учащимися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ведущим должен быть педагог или взрослые помощники. (8면에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 노인정 할머니, 어버이날 축하 받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가 운영하는 노인정은 한 달에 2번 모인다. 계획대로 지난 5일 (토)에도 어르신 약 30명이 노인정을 찾았다. 이날 시한인회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할머니들에게 축하하기로 했다. 림중환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회장은 축하하며 어르신들에게 손자녀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기원했다. 시한인회 측에서 이번에 준비한 선물은 금일봉이었다. 후원은 <엘렉트로사호몬타주>회사 정해성 사장·<가가린>호텔 권행자 사장 내외가 준비했다. 권행자 세계한민족여성재단 이사는 이날 어르신들을 이렇게 축하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다. 할머니들도 역시 생각치 않은 선물에 고마움을 표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5월 9일 전승절을 앞두고 림중환 회장은 박 소피아 노동전선 참가자(88세)를 축하하고 꽃다발을 수여했다.

이날 시한인회와 주한인여성회 회원들인 김종길, 박위석, 야마다 학희 씨는 노래공연으로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사회를 한 김웨철 주영서회 회장도 아름다운 가창으로 어르신들의 환호를 받았다. 점심시간 이후에도 할머니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취재: 배순신 기자)

한국어 예비교원 사할린 파견 실습 사업 경희대학교 맡아

지난 5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박동호 교수와 동 대학 언어교육원 송지연·조아란 한국어 강사들이 사할린을 다녀갔다. 한국 국립국어원이 2017년에 예비교원 해외 파견 실습 사업을 처음 실시했는데 작년 9-10월에 사할린에 20여 명의 예비교사들이 실습하게 되었다. 그당시 이 사업을 국립국어원이 인하대학에 위탁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경희대학교가 맡게 되었다. 그래서 경희대 팀의 사할린 방문 목적은 한국어 예비교원 실습 프로그램 확정하는데 있었다.



한 한국어채택학교, 그리고 한글학교들에서 어떤 식으로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실습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특히 한글학교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러 왔다고 전했다.

올해 국립국어원은 사할린을 비롯해 많은 한글학교에 예비교원의 실습을 보내기로 하여 경희대팀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소재 동양김나지아를 비롯 코르사코브, 돌린스크, 홈스크,

우글레고르스크 등지 학교와 한글학교를 방문하여 한국어교육의 실태를 파악했다. 경희대 팀의 바쁜 사할린 일정은 사할린한국교육원에서 준비하고 김주환 원장이 모든 교육기관의 방문을 함께 했다.

박동호 교수에 따르면 한글학교는 1년간 수업을 하는데 수강생들이 더 높은 과정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계속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여 반복된 느낌을 받아서 아쉬웠다고 했다. 또한 전문적인 사람들이 가르쳐야 하는데 유즈노사할린스크 외곽을 벗어나 특히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활동하고, 전문교육을 받지 못한 한국어교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안타까웠다고 했다. 그리고 지방 한글학교 수업이 한인회 사무실에서 이뤄지

고 있으니 시설이 안 좋은 게 아쉽다고 했다.

경희대학교는 1999년에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과가 처음 생긴 대학이다. 그래서 한국어과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과라고 자부하고 있다고 박동호 교수는 덧붙였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예비교원들은 두 차례로 파견될 예정이다. 첫 10명의 교원은 9월에 한 달 프로그램으로 올 예정이고, 다음 10명은 10월 한 달간 사할린에서 실습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2번의 프로그램에 학생들을 적절히 사할린 지역에 나누어 파견해서 실습할 예정이다.

사할린에서 한국어 교육 활성화에 이와 같은 파견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가 된다.

(배순신 기자)

제4회 한·러 청소년오케스트라 공연

"한·러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음악교류가 10년, 나아가 100년간 지속되길"



사할린 유·청소년오케스트라(단원 70여명, 지휘: 빅토리아 유흐마노와)와 한국 키도(KYDO 농어촌희망청소년오케스트라)(단원 31명, 지휘: 고영휘)의 합동공연이 5월 6일(일) 17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스톨리차 비즈니스센터 콩그레스홀과 7일(월) 18시 코르사코프시의 <오케안>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콩그레스홀의 무대에는 거의 80명 이상의 연주자들로 가득차고 이들에게서 울려 퍼질 하모니에 관객석에는 기대와 설렘이 있었다. 공연에 앞서 주 문화고문서부 알렉세이 겐나지비치 사마린 장관은 4번째 맞이하는 양국 청소년오케스트라의 교류를 반기며 "한국 키도와 관계로 사할린 유·청소년오케스트라의 연주 실력이 한층 향상되었음을 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9월에는 사할린의 유·청소년 오케스트라가 한국에 초청되어 자신의 지식을 풍성히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마사회 문화복지팀 강영호 차장은 한국 마사회 김낙순 회장의 인사말을

대독했다.

"아름다운 사할린에서 한국 농어촌희망청소년오케스트라와 러시아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어울려 연주하는 모습은 마치 천사의 하모니처럼 들린다. 양국 청소년들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 한국 마사회는 한·러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음악 교류가 10년, 나아가 100년까지 지속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며 주 정부 주지사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알렉산드르 사마린 장관은 매년 공연을 성사해온 마사회의 강영호 차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한국 마사회 측에서도 알렉산드르 사마린 장관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자, 장관은 "앞으로 우리는 150년 이상 교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합동연주에서 빅토리아 유흐마노와 지휘자는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호도까기 인형' 중 <행진>, 에드바르 그리그의 '페르 쿤트'에서 '첫 수트'의 <아침>,

모짜르트의 심포니 40번 G단조,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과 1번,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중 <러시아 춤>을 지휘했고,

고영휘 지휘자는 프란츠 폰 주페의 오페레타 중 <경기병 서곡>, 한국의 최영섭 작곡가의 노래 <그리운 금강산>과 전통민요 <아리랑>, 요한 슈트라우스의 <라데츠키 행진곡>을 지휘했다.

첫 곡으로 차이콥스키의 '호도까기 인형' 중 <행진>이 관악기의 경쾌한 리듬과 함께 시작되었다. 처음 관악기 연주에 약간의 불협음이 들리긴 했으나 노련한 바이올린 연주자들과 정확하게 뒤를 받쳐주는 첼로와 콘트라베이스의 연주 속에 모짜르트의 심포니 40번,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에 들어서면서 연주는 완성도를 높여갔다. 5월의 생동하는 자연과 함께 곡들은 생동감과 경쾌함이 넘치는 곡들이었다.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중 <러시아 춤>에서 알스카야 소피아의 바이올린 독주와 협연은 극치에 이르러 객석에서는 연신 '브라보'가 터져나오고, 갈채가 오래 지속되었다. (7면에 계속)

"왜 물어보지 않고 <주한인회> 이름을 달았습니까?"

2018년 5월 4일호 새고려신문에는 재즈앙상블 공연에 대한 <러한 친선 새 봄맞이 음악회 즐겨>란 기사가 실렸습니다. 공연은 한인문화센터에서 진행되었고 공연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짝 걸립니다.

이 공연은 처음부터 비즈니스 프로젝트였고 유료 입장이었습니다. 공연은 러시아 측에서 사할린주 필하모니아가 주관했습니다. 필하모니아 측에서 한인문화센터 공연실을 임대하고 당연히 공연 입장권을 판매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 시작하기 몇 분 전에 갑자기 이 공연 주최·주관은 사할린주 필하모니아가 하고 있는데 후원은 한국 측에서 국제문화공연교류회, 러시아 측에서 사할린주한인회가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나는 공연장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왜 이 내용을 누구도 미리 합의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공연이 "주한인회 후원 아래 하니 왜 공연장을 유료 임대한 것인가, 또 하나는 입장은 왜 유료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공연은 처음부터 주 필하모니아의 비즈니스 프로젝트이었다는 것을 해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 이름을 주한인회 측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잘못 된 일입니다. 이 현수막은 미리 한국에서 제작하여 가져왔습니다. 나는 이 현수막을 준비한 국제문화공연교류회 양평수 회장에게 "왜 한 마디 상의없이 우리 단체 이름을 후원으로 썼는가?"라고 여쭙어보았는데 정확한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할린주 필하모니아 측에서도 공연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할린주한인회 회장으로서 처음에는 이 상황을 그저 두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한인회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인정하는 대규모 민족단체이고 사할린주정부, 지방자치구들과 협력하여 활동을 펼치고 있고, 사할린주사회원 회원, 러시아 사할린주민협회 회원이며 단체 회장은 주지사 산하 이사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국 행정안전부, 대한적십자사, 대한민국의료보건의재단 비롯 여러 국가기관, 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할린주 한인회는 어떤 경우로든 무시 당해서는 안 되며 존경과 인정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을 표하며,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

2018년 5월 10일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Юные музыканты Сахалина и Южной Кореи сыграли на одной сцен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успехом прошел первый концерт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в котором играли талантливые музыкан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оба коллектива представляют разные страны и культуры, на сцене им удалось показать любовь к музыке и искусству. Стоит также отметить, что на полноценные репетиции у ребят была всего пара дней. Но во время концерта им удалось сыграть все десять композиций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Репертуар для своих подопечных верстали их наставники. Поэтому в него вошли музыкальные шедевры композиторов двух стран, а также извест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мировой классики.

— Мне приятно констатировать тот факт, что наши отношения с детским оркестром KYDO перешли новую качественную грань, — отметил в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слове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Самарин. — В сентябре наши ребята отправятся в Южную Корею с ответным визитом, где получат возможность еще больше обогатить свои знания и заведут новых знакомых.

Первой на дирижерский мостик вышла Виктория Юхманова. Она уже больше десяти лет управляет Сахалинским детским симфоническим оркестром. В этом уникальном коллективе собраны более 70 одаренных подростков из Анивы, Невельска, Поронайска, Углегорска, Шахтерск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оркестре KYDO выступают дети из сельских местностей различных провинций Южной Кореи. Его название переводится как "Оркестр мечты". И туда попадают только самые одаренные дети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прослушиваний. Оркестр нередко гастролирует за пределами своей страны, но в зарубежную поездку каждый музыкант отправляется лишь один раз. Таковы правила эт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Фото: Ли Е Сик

Во второй части концерта за дирижерским пультом руководил уже Го Ён Хви. Сводный оркестр под его управлением сыграл четыре композиции. Две из них были корейские народные. При этом узнаваемое во всем мире произведение "Ариран" на бис сыграли дважды.

7 мая состоялся второй концерт. Он прошел в корсаковском культурно-досуговом центре "Океан", сообщили в областном научно-методическом центре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Цветы к Могиле Неизвестного солдата у Кремлевской стены

В Москве, 4 мая 2018 года делегация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возложила цветы к Могиле Неизвестного солдата у Кремлевской стены.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ног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щин столицы почтили память павших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В Москве проживаю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олее 160 народов и этносов России. И каждый из них внёс свой вклад в нашу общую Победу. Группа активистов ООК также принимала участие в этой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возложения цветов.

Сред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имеется и Герой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командир батальона, погибший под Ровно, капитан Александр Павлович Мин. Только выявленных участников войны-орденоносцев из числа корейцев насчитывается почти 400 человек,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корейцев официально на фронт не пускали.

Хотя права воевать в Великую Отечественную войну 1941-1945 гг. корейцы были лишены – воины-корейцы, студенты полулегально (иногда под другими фамилиями, смен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попадали на передовую. Они были не просто активными участниками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партизан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 Белоруссии, Крыму, но воевали почти на всех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освобождая страны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ы от фашизма. Немало корейцев участвовало и в разгроме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и.

Вот некоторые судьбы. Алексей Михайлович Сон, 1928 г. р., воспитанник Кокандского (Узбекистан) детского дома. В 1941-1942 гг. учился в Московской военной школе музыкантов. После ее окончания сбежал на фронт. Как символ далекого фронтового детства и личного участия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1941-1945 гг., Совет Дома ветеранов войн и Внутренних сил 9 мая 2008 г. вручил ему нагрудный знак «Сын полка». Награжден орденами Славы III степени,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II степени, медалями «За боевые заслуги»,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Праги».

Участником знаменитого парада 7 ноября 1941 г. на Красной площади в Москве был Семён Васильевич Кан.

В обороне и контрнаступлении советских войск под Москвой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Михаил Тэн, гвардии младший лейтенант Владимир Степанович Ли, старший сержант Цой Губой.

При обороне Ленинграда участвовали 21 кореец: Владимир Терентьевич Ким, Ким Дя Ен, Елисей Алексеевич Ким, Ким Кильсон, Пётр Янирович Ким, Сергей Хенкович Ким, Алексей Михайлович Ли, Алексей Фёдорович Лим, Лев Мун, Евгений Степанович Пак, Степан Васильевич Пак, Пак Тхаир, Яков Дмитриевич

вич Пак, Николай Ильич Пяк, Иван Андреевич Тен, Степан Николаевич Тэн, Павел Николаевич Тян, Валентина Андреевна Хан-Фимина, Валентин Иванович Цай, Лаврентий Николаевич Югай, Владимир Егорович Ли.

В Сталинградской битв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6 корейцев: лейтенанты Николай Яковлевич Ти, Иван Васильевич Тэн, Тян Бернам, Пётр Николаевич Цой, старший сержант Вениамин Арсентьевич Ким, сержант Ким Чон Гон, гвардии младший сержант Владимир Алексеевич Ким, гвардии красноармеец Хе Инам, красноармейцы Алексей Дмитриевич Ким, Дмитрий Ким, Александр Васильевич Нам, Михаил-Яков Иосифович Пак, Пак Ханун, Анатолий Тен. В ноябре 1942 г.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алинградского завода «Баррикады» погиб связист Михаил Анатольевич Ким, его имя увековечено в Зале воинской славы на Мамаевом кургане.

В битве на Курской дуге сражались 8 корейцев: подполковник Семён Васильевич Кан, старший сержант Николай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Ким, сержант Владимир Степанович Ли, старший сержант медицинской службы Валентина Николаевна Ни, старшина Степан Васильевич Пак, Владимир Ефимович Тё, старший сержант Ирсен Тиксамович Чен. Имя гвардии младшего сержанта Николая Ивановича Нама, погибшего на Курской дуге, можно увидеть на мемориальной доске братской могилы на ст. Беленихино Белгородской области.

В штурме Берлина участвовали 11 корейцев: гвардии старший сержант Алексей Фёдорович Ким, красноармеец Анатолий Миронович Ким, старший сержант Елена Прокопьевна Ким, старший лейтенант Алексей Владимирович Ли, Алексей Фёдорович Лим, старший сержант медицинской службы В. Лим, старший сержант медицинской службы Валентина Николаевна Ни, гвардии старший сержант Анатоли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Огай, старшина Степан Васильевич Пак, сержант Хван Донгук, гвардии капитан Александр Григорьевич Хван.

Особо отметим, что на Параде Победы 24 июня 1945 г. на Красной площади вместе с другими победителями маршировали участник обороны Москвы и битвы на Курской дуге гвардии младший лейтенант Владимир Степанович Ли и участник боевых операций на Юго-Западном фронте, юнга Краснознаменного Балтийского флота Серге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Хан.

Ким Моисей,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Сеуле и Пусане прошел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В воскресенье в двух крупнейших городах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еуле и Пусане состоялась акция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Несмотря на дождливую погоду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Они с портретами своих родных и близких, принимавших участие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прошлись по улицам Сеула и Пусана.

В одном только марше в Сеул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двухсот человек - граждане России, стран СНГ, Кореи и других стран. Вместе в одной колонне с посл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Корею прошли также послы Беларуси, Таджикистана,



советник-посланник Киргизии, другие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После марша 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лице и Пусане состоялись праздничные концерты и выступления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где были исполнены песни военных лет, включая "Вставай, страна огромная", "Три танкиста", "Синий платочек" и другие. Одновременно в Сеуле про ш л и а к ц и и "Георгиевская ленточка",

полевая кухня, "раздача хлеба по блокадным карточкам Ленинграда". В эт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полутысячи человек.

(Олег Кирьянов, РФ)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18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476 руб. 2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22 мая в Вашингтоне пройдёт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й саммит

22 мая в Вашингтоне пройдёт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й саммит. Как сообщ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главы двух стран Мун Чжэ Ин и Дональд Трамп обсудят в основном вопросы, касающиеся подготовки к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у саммиту. Кроме того, предстоящая встреча призвана подтвердить прочность двустороннего альянса и крепкую дружбу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Это будет уже четвёртая по счёту встреча Мун Чжэ Ина и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МИД СК: Давление США не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решению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Пхеньяна

Пхеньян призвал Вашингтон прекратить давление и угрозы. Ядерная и ракетная проблемы не будут решены, «если США сочтут миролюбивые намерения СК признаком слабости».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распространённом в воскресенье агентством ЦТАК заявлении неназван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МИД. США «вводят в заблуждение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утверждая, что наше стремление провести денуклеаризацию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заявленное в Пханмунчжом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которая была принята на историческом межкорейском саммите, является результатом санкционного давления»,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США «вновь нагнетают напряжённость в регионе, заявляя об отказе снизить санкционное давление, пока Пхеньян полностью не откажется от ядерного арсенала». Американские санкции являются «ничем иным, как опасной попыткой остудить достигнутую атмосферу диалога и вновь вернуть ситуацию на исходную точку», - отмечае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представител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МИД.

В Сеуле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изобразительных искусств новой истории Кореи

3 мая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музее соврем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который расположен во дворце Токсугун,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изобразительных искусств новой истории Кореи. Выставка под названием «Моя любимая галерея – шедевры новой истории» приурочена к 20-летию открытия музея и продлится по 14 октября. В экспозиции около 90 произведений, в том числе картины таких известных художников как Ли Чжун Соп и Пак Су Гын, скульптуры и изделия 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Кроме того,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лены 30 архитектурных чертежей и 100 архи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касающихся искусства нового времени.

Юг и Север образовали единую команду по настольному теннису

Международная федерация настольного тенниса (ITTF)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борных Юга и Севера образовали объединённую женскую команду для участия в командном чемпионате мира 2018 года по настольному теннису. Он проходит в шведском Хальмштаде. Сборные двух Корей должны были сыграть друг с другом в четвертьфинале, однако решили выступить единой командой, автоматически выйдя в полуфинал. Из-за нехватки времени на подготовку единой формы, игроки выступили в формах своих прежних команд.

Корейская команда проиграла со счётом 3:0 Японии в полуфинале, но результат, похоже, мало повлиял на настрой игроков обеих стран.

В Пусане пройдёт Busan Peace Film Festival

С 17 по 20 мая в Пусане пройдёт 9-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Busan Peace Film Festival.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тся с 2014 года с целью подчеркнуть ценность мира через кино. В этом году в его программе - 934 фильма, что является рекордной отметкой. Фестиваль знакомит зрителей с картинами, которые освещают такие темы, как пацифизм, права человека, уважение жизни, протест войне и другие. В этом году был определён слоган «Ты, я, мы». Откроет фестиваль документальная картина о жизни композитора Юн И Сана, который мечтал о примирении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Фильм будет показан в РК впервые.

(RKI)

Мун Чжэ Ин предложил КНДР реализовать трехсторонние проекты с Россией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гося 27 апреля в Пханмунчжоме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Мун Чжэ Ин предложил лидеру КНДР Ким Чен Ыну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особенно реализацию крупных трехсторонн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с участием Сеула, Пхеньяна и России.

Информацию с презентацией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инициатив Мун Чжэ Ин передал Киму на флеш-карте во время личной встреч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в общих чертах сначала сам Мун Чжэ Ин, а затем дополнили подробностями его помощники.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ерез пару дней после саммита Мун Чжэ Ин собрал своих ближайших помощников, которым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зал о содержании переговоров с Ким Чен Ыном. Мун сказал, что он также передал Киму предложения под общим названием "Нов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нцепция".

В нем содержались инициативы по активизации и развитию межкоре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ри этом Мун сам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 этой "Нов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концепции" особое место отведено реализации крупных трехсторонних проектов с участием России.

Позже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эту информацию Мун не только довел до Кима на словах, но также и передал Ким Чен Ыну флеш-карту, где был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презентация. Лидер Юга отметил, что активизация этих проектов станет возможной в случае успеха на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саммите, который должен состояться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добавили подробностей к этой новости. Они отметили, что все эти инициативы с участием РФ и КНДР были оговорены во время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ВЭФ)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котором Мун Чжэ Ин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сентябре. Тогда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подготовку к возможной реализации трех круп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 задействование РФ, РК и КНДР - это соединение Транскорейск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с Транссибирской магистралью, а также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е поставки газа и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из России в Южную Корею через территорию КНДР. Судя по словам чиновников, именно эти проекты и предложил Мун Чжэ Ин реализовать Ким Чен Ыну.

(Олег Кирьянов, РФ)

Южная Корея влюбилась в Ким Чен Ына

"От любви до ненависти - один шаг" -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этой пословицы, только в обратном порядке, в полной мере демонстрируют сейчас южнокорейцы. Согласно проведенному 1 мая теле-радиовещательным каналом KBS опросу, рейтинг лидер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а в Южной Корее составил 80 процентов, опередив даже уровень поддержки очень популярного собстве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а - Мун Чжэ Ина.

В эти результаты не поверили сначала даже те, кто проводил опрос. Однако полученные друг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результаты подтвердили очень высокий рейтинг Кима. Так, у MBC уровень поддержки Кима в Южной Корее составил 77,5 процента, а у газеты Dailian - 74,4 процента.

Председатель ведуще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свободной Кореи Хон Чжун Пхё мрачно пошутил, сказав: "Если так пойдет и дальше, то следующим нашим президентом будет избран Ким Чен Ын". Учитывая, что Хон представляет интересы наиболее консервативных кругов и самых ярых противников КНДР, то так политик выразил свое разочарование настроениями электорат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результат несколько неожиданный. Ким Чен Ын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ямо угрожал Южной Корее ядерным оружием, власти КНДР постоянно критиковали политику и строй Юга и вдруг такая любовь!

Причиной для такого резкого скачка популярности Ким Чен Ына среди южнокорейцев является состоявшийся 27 апреля меж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в Пханмунчжоме.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очень активно транслировалось в эфире в Южной Корее, а потому многие южане увидели не какого-то "монстра", кем многие ранее считали Кима в Южной Корее, а уверенного в себе и в то же время тактичного и вежливого политика, который умеет шутить, который умеет поддерживать беседу, который не прочь и рюмку пропустить на банкете, у которого симпатичная и скромная жена. Кадры, как лидер Юга Мун Чжэ Ин и Ким Чен Ын шли, взявшись за руки, а потом обнимались, облетели весь мир.

Благодаря саммиту и рейтинг президента Юга Мун Чжэ Ина тоже поднялся аж до 77 процентов. Но в итоге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в некоторых случаях Ким оказался более популярным в Южной Корее, чем собственный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Впрочем, зафиксировав все эти факты, местные СМИ напоминают, что правило "от любви до ненависти - один шаг" легко может сыграть и в обратную сторону, а потому, симпатия южан к лидеру Страны чучхе может очень быстро из-за какого-то мелкого инцидента "поменять полярность", превратившись в резкую критику. Правда,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по отношению к Южной Корее КНДР пока ведет себя очень аккуратно, будто не желая "расплескаться" приобретенн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Олег Кирьянов, РФ)

СМИ: Пекин и Вашингтон обсуждают вывод ПРО США из Южной Кореи

США и Китай обсужд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вывода американской системы ПРО THAAD с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Этот шаг станет частью большой американо-китайской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сделки". В ответ Пекин будет активно сотрудничать с США п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роблеме, включая наращивание давления на Пхеньян.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южнокорейское англоязычное издание The Korea Times со ссылкой на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анонимные источники, которые так или иначе связаны с американо-китайскими переговорами.

Напомним, что системы ПРО США THAAD появились в Южной Корее в ответ на рост ракетно-ядерной угрозы со стороны КНДР. Однако Китай и Россия считают, что эта ПРО на самом деле нацелена на создание системы глобальной ПРО США в целях нейтрализации ракетных сил своих возможных противников -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КНР и РФ. Учитывая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ПРО США в Южной Корее, она представляет наибольшую угрозу для Китая, чем и объясняется жесткая реакция Пекина на этот шаг. Ранее КНР ввел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анкции против Южной Кореи.

"Вывод систем ПРО США THAAD из Южной Кореи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большого мирного плана, который Пекин и Вашингтон обсуждают друг с другом. Данный план должен быть реализован после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НДР", - цитирует южно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слова одного из источников. Он добавил, что в целом подразумевается большая сделка между КНР и США по поводу региона, когда в обмен на вывод ПРО США из Южной Кореи Китай начнет активно сотрудничать с Вашингтоном п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у вопросу. Как отмечается, "США хорошо понимают, что какие-либо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 КНДР нельзя осуществить без содействия со стороны Китая", а потому обе стороны - как США, так и Китай - имеют то, что надо противоположной стороне, и похоже, что готовы пойти на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размен".

Другой источник также отметил, что Китай и США ведут стратегическую "торговлю". "У Китая есть список своих приоритетов по поводу Кореи на переговорах с Соединенными Штатами. Первым в списке идет пункт о выводе ПРО США THAAD из Южной Кореи. Далее следует вывод войск США из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 отметил собеседник. Он признал: США вряд ли согласятся на полный вывод, что понимают в Пекине, а потому в этом плане скорее всего будет разговор о сокращении военного контингента США в Корее.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на днях The New York Times сообщила о том, что Дональд Трамп дал указание Пентагону подготовить план и предложения по сокращению численности войск США в Корее. Если это правда, то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мозаика" большог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торга" складывается. Правда возникает вопрос: что же тогда Китай отдаст США за такие серьезные уступки, как вывод батареи ПРО и сокращение контингента?

Источники газеты утверждают, что КНР будет активнее сотрудничать с США п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роще говоря, Пекин станет делать то, что надо Вашингтону, как ответная плата за вывод ПРО и сокращение контингента. В конкретных шагах это скорее всего выразится в готовности оказывать активное давление на КНДР самыми разными способами - от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до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силовых.

(Олег Кирьянов, РФ)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тметила День Победы

Только в утренних торжествах – состоявшихся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митингах, шествиях и главном событии праздника - военном парад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очти 55 тысяч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региона. Самой многочисленной за всю историю стала народная акция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 по улицам городов и сел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портретами родных и близких - герое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 прошли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более 17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7-тысячная колонна потомков победителей растянулась почти на километр. Участники шествия разного возраста, многие из которых были одеты в форму военных лет, проследовали по проспекту Победы до одноименной площади.

- Несу портрет деда, которым очень горжусь, - поделился вставший в ряды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Александр Васильев. - Василий Иванович Злобин в 1941 году ушел добровольцем в Красную Армию, защищал Москву. Война для него закончилась в Европе в 1944 – тогда чудом выжил после тяжелейшего ранения. Мы – внуки стали военными офицерами, взяв с деда пример. День Победы считаем священным, поистине всенародным праздником, а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 главной акцией для страны, которая помогает сохранить память о том великом подвиге советского солдата, который защитил мир от фашизма.

Главные торжества по случаю празднования 9 ма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развернулись на площади Победы. Здесь собрались более 12 тысяч человек. Для самых почетных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 ветеранов – обустроили две трибуны, с которых можно было наблюдать за военным парадом.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началось с выхода знаменной группы. По площади пронесли флаг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Знамя Победы. Парадные расчеты Сахалинского гарнизона с праздником поздравил командир 68-го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генерал-майор Дмитрий Глушенков. Под артиллерийские залпы сводный оркестр исполнил Гимн России.

По площади Побед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шли парадные расчеты, за которыми двинулась боевая техника - бронетранспортеры, машины связи и химической разведки, артиллерийские системы «Рапира» и «Гиацинт», системы залпового огня «Град» и «Ураган».

После центр праздничных событий переместился на площадь Славы, куда ветеранов доставили на автобусах. По пути следования их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жители города. На мемориале Славы собравшиеся минутой молчания почтили память советских воинов, павших на полях сражений.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возложения цветов и венков к Вечному огню.

Вечером на площади Победы состоялась праздничная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состоялись выступления образцово-показательного оркестра войск национальной гвард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 начальник военноркестровой службы, главный военный дирижер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войск национальной гвард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служенный артист России полковник Владимир Васяк).

Для собравшихся звучали фронтовые и послевоенные песни: «Баллада о красках», «Письмо отца», «Случайный вальс», «Баллада о солдате», «Песенка военных корреспондентов», «Смуглянка», «Журавли», «Майский вальс», «Баллада о матери»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Вечер закончился праздничным фейерверком.

Подписан меморандум о формировании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ластер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кумент подпис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го туристско-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и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о словам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ра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ергея Буренкова, в рамках соглашения предусмотрен ряд взаим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участников проекта,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о реализовать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Кроме того, в меморандуме оговаривается необходимость формирования пакетных туров для туристов, которые прибывают на Сахалин не только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о и со всей России.

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ластер - это объединение организаций, предоставляющих услуги в сфере туризма. В своем составе он имеет мелкие и крупные фирмы, постоянно взаимодействуют между собой и располагаются на единой территории в пределах одного региона. Совместная работа ведется как во внутреннем (путешествия внутри страны), так и во внешнем направлении (зарубежные поездки).

- Сегодня очень важное событие, оно послужит серьезным стимулом к развитию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Буренков. - Кластерный подход, который мы реализуем, –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которо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оходит согласование в составе новой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

тия туризм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Я уверен, что мы и наш регион станут одними из первых, кто на практике применит этот механизм.

-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Горный воздух»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 добавил к словам министра директор комплекса Андрей Кораблев. - Любой приезжающий к нам человек – это деньги, развитие и нов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Поэтому, чем больше операторов зайдут на острова для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тем будет лучше для всех.

Авиакомпания «Аврора» и «Горный воздух» давно и плодотворно сотрудничают. Об этом упомянул Андрей Колесник,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авиаперевозчика. Но, по его словам, не только горнолыжный комплекс представляет интерес для потенциальных туристов. В области есть и другие интересные географические, архитектурные, спортивные и природные объекты, еще не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должным образом российским и иностранным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ам.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рек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Олег Фёдоров отметил, что учебное заведение обеспечит подготовку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области сервиса на транспорте и в сфере сервиса и туризма. А имея серьезный опыт подготовки волонтеров к WorldSkills и первым Международным спортивным играм «Дети Азии» - добровольцев для всего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ластера.

По словам руководителя Сахалинского туристско-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Олега Романова, меморандум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единым стандартам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к тому же он создаст интересную дискуссионную площадку. В рамка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го туристско-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и област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туденты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практику в туристических компаниях, работаю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Новый резидент появится в составе ТОР «Горный воздух» на Сахалине

Островная компания «Клиника 21 век плюс» планирует в 2020 году открыт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временный многопрофильный медицинский центр.

Находиться учреждение будет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близости от горы Большевик,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своеобразным центром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ТОР) «Горный воздух», созданной на базе одноименного горнолыжного курорта.

- Мы уже семь лет работаем на региональном рынке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 рас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ОО «Клиника 21 Век Плюс» Александр Ульянов. - С помощью новой клиники, построенной за счет частных инвестиций, намерены предоставить качественн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жителям и гостям области. Речь идет, в частности, о туристах, приезжающих на Сахалин, чтобы провести отпуск на склонах лучше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горнолыжного курорта. Горные лыжи и сноуборд, несомненно, прекрасный отдых, но и риск получения травм, в основном верхних и нижних конечностей. В таких случаях необходимо тщатель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и лечение у опытного специалиста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современных методик. Поэтому в нашей новой клиник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площади 24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разместятся кабинеты травматолога-ортопеда и подолога - врача, занимающегося лечением заболеваний стопы и голени. Конечно, будем обслуживать пациентов и по друг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Вести прием будут также оториноларинголог, стоматолог, гинеколог, онколог. Наши пациенты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широкий спектр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амбулаторно-поликлинического профиля по диагностике и профилактике различных форм заболеваний.

Руководство будущей клиники планирует также привлечь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медицин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в частности, в области флебологии.

Островные любители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инициативу по созданию новой клиники поддержали.

- Падения и травмы горнолыжников и сноубордистов – явлени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е, - рассказал Алексей Аверин, горнолыжник-любитель. Я сам недавно повредил ногу на склоне. Хотя экстренная госпитализация не требовалась, пришлось, чтобы пройти диагностику и получить помощь, побывать в нескольких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в разных концах города. Но я местный житель. А представьте, насколько все это сложнее и хлопотнее для туриста, приехавшего отдохнуть. Поэтому я считаю, что на горнолыжном курорте должна быть отлаженная система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специфических травм, чтобы человек мог приехать в одну клинику, пройти диагностику и лечение от начала до конца.

Территория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Горный воздух»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Здесь создана обширная зона катания, современные подъемники и системы освещения. Продолжается возведение ряда объектов – бальнеолог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Хонока», гостиницы с водным комплексом, хостелов класса эконом и гостинич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стиле «шалле». Рост инвестиций в рамках ТОР «Горный воздух» способствует оживлению экономики региона, созданию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для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По итогам прошедшего сезона установлено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рекордов посещаемости – этой зимой склоны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привлекли около 90 тысяч гостей.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 дня комплекс посетили 5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новогодние праздники на склонах побывало свыше 33 тысяч любителей спорта. Это более чем вдвое превышает показатели прошлого года.

Многодетная семья погорельцев из Дальнего сможет приобрести квартиру, воспользовавшись сахалинской мерой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овместно с семьей, потерявшей квартиру в результате пожара, проработаны дальнейшие действия по сопровождению погорельцев до улучшения их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Также им будет оказана помощь в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уничтоженных огнем документов.

26 апреля пожар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ностью уничтожил двухкомнатную квартиру на улице Крымской в новом микрорайоне Дальнего, где супруги Марина и Сергей проживали с тремя детьми. К счастью, никто в результате случайного возгорания не пострадал - жильцы своевременно покинули опасное мест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мама Марина Евгеньевна с тремя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ми детьми живет в квартире своего брата, а глава семейства наводит порядок в выделен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ременной квартире.

- Долго жить в предоставленной квартире им не придется, так как уже в начале мая семья пополнится четвертым ребенком, с рождением которого она приобретает право на сахалинскую меру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улучшение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 подчеркнула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области Елена Касьянова по итогам личной встречи с многодетной семьей.

Напомним,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регионе действует новая ме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для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При рождении четвертого малыша им выделяются бюджетные средства на покупку жилья - в среднем около 6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семью. Всег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ействует более 50 мер поддержки для семей с детьми.

Более трехсот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получили поддержку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В прошедшем году общая сумма оказанной поддержки предприятиям, реализующим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роекты, составила 54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Еще 204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субсидий на создание и развитие бизнеса получили областные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малые и средние предприятия региона.

Инвесторам установлены льготы по уплате налогов на имущество и прибыль организаций,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субсидии, компенсируются затраты на уплату процентных платежей по кредитам и затраты на уплату лизинговых платежей. Также им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компенсация затрат на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присоединение к сетям ресурсоснабжающих организаций, возмещение части затрат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оборудования и на капитальные вложения в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роект в приоритетных отраслях.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около 28 тысяч субъектов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Сахалинцы открывают частные детские сады, предприятия быстрого питания, организуют собственное мал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Помимо поручительства и займов им оказывается поддержка через механизм субсидирования расходов 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программах с привлечением средств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на 1 бюджетный рубль, который власти вкладывают в бизнес, приходится в среднем 3 рубля налоговых отчислений.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уделяется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созданию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бизнеса. И уже сам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все чаще говорят о положительном эффекте действий остров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 В бизнес мы пришли в 2014 году, - говорит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Дмитрий Федосеев. - У нас уже есть опыт работы с фондом поддержки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на сегодня у нас уже второе обращение. Первый раз мы обратились за поддержкой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стро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и получили её. В планах - запуск второго проекта, связанного уже с продуктами питания. Без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бизнес развивался бы намного медленней.

Во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прямой линии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тметил, что инструменты поддержки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должны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ся. Текущая работа островной власти по улучшению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идёт с активным участием федеральных структур.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 островным бизнесом активно работают 3 института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инвестиций», АО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Сахалинский фонд развит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제4회 한·러 청소년오케스트라 공연

"한·러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음악교류가 10년, 나아가 100년간 지속되길"

(3면의 계속)

고영철 지휘자가 지휘를 시작한 주제의 '경기병 서곡'은 더욱 완벽한 흐름으로 연주되어 크게 울려 줄 심벌즈는 없었으나 대신 트럼펫이 조화를 맞추면서 음악은 경기병들의 사열, 행군이 느껴질 정도의 하모니가 이뤄졌다. 한국의 '그리운 금강산'은 자주 듣는 곡이지만 지휘자나 편곡에 따라 연주 시 느낌이 조금씩 달라진다. 전체 바이얼린이 음을 돋우며 바람처럼 일으킨 첫 소절이 시작되었다. 이 곡은 눈에 보이는 금강산보다도 마음 속에 그리워하는 금강산을 그려내고 있는 듯했다. 이어지는 '전통 아리랑'도 편곡이 되어 한을 품은 듯한 느린 곡이 아닌, 씩씩함과 푸른 바다에 출렁이는 파도를 따라 나가는 배, 산을 넘는 시원한 바람, 가녀린 봄기운마저 느껴지게 하는 편곡이었다. 연주 중간에 북을 두드리듯 추임새로 발 구르기를 하여 아리랑곡은 청소년들의 힘찬 행진과 비상(날아오름)을 느끼게 했다. 마지막 요한 스트라우스의 <라데츠키> 행진곡은 모든 관객들이 기다리던 곡이기도 했다. 악기의 한 부분으로서 모두 준비된 손뼉을 마주하고, 지휘자의 신호를 기다려 박자에 맞추어 치는 협연을 이뤄냈다.

연주 후 앙코르 곡으로는 '아리랑'이 다시 연주되었다. 양국 청소년들이 음악으로 조화를 이룬 가운데 이틀간 합동공연을 연습하고 무대에 오른 연주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공연 3일 전, 5월의 눈보라가 치고 기온도 뚝 떨어진 날, 사할린에 도착한 키도(KYDO)는 이틀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사할린의 청소년들과 음악으로 교류하며 합동공연을 준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집결한 사할린 유·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비롯해 아나와, 네웰스크, 포로나이스크, 사호츠크에서 선발

된 학생들이다. 하루 9시간 집중 연습을 하느라 학생들은 여독을 풀 시간조차 없었다고 한다. 4일(금)에 한인문화회관에서 키도를 인솔하는 고영철 지휘자를 만났다. 고영철 지휘자는 현재 경기도 파주시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다. 4년 전에 비올라 연주자로서, 이번에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 사할린 방문은 두 번째라고 한다. 이번 사할린 청소년들과의 합동공연을 지휘하는 그의 소감을 들어 보았다.

'사할린의 청소년들과 키도 청소년들이 잘 어울렸는지, 연주곡 연습상 어려움은 없었는지, 사할린 청소년오케스트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

"사할린의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들의 소통 문제에 있어서는 걱정이 없었다. 연습실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아이들은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았어도 서로 소통을 위해 몸짓으로, 구글 번역기를 두드려가며 소통하려고 하고, 서로를 알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았다..."

연습 중 놀라웠던 것은 관악기 전체 편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러시아 선생님 한 분이 색스폰 연주자에게 트럼펫 연주 악보를 한 시간 만에 바꾸어 만들어 주면서, 없는 악기를 보완하도록 하여 오류 없이 연주가 이뤄진 점이었다.

무엇보다 연주는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각과 정신이다. 어떤 생각, 어떤 책임, 어떤 정신을 가지느냐에 따라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다. 연주할 때 테크닉에 집중하다 보면 기계처럼 바뀐다. 그런데 사할린의 청소년들이 즐겁게 연주하는 것을 보았다. 아무리 자기에게 천재적 재능이 있어도 즐겁게 노력하는 사람은 못 따라간다. '재미있어 하고, 긍정적이고, 낙천적

으로 즐기며 연주하는 이들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란 생각이 든다. 지휘자 선생님도 열정적으로 하시니 앞으로 사할린 청소년오케스트라에 희망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사할린에 오기까지 일정이 너무 바빠서 주저했는데 와보니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음에 또 오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앞으로 사할린 청소년오케스트라와 키도와 교류도 지속될 거라는 전망을 밝혔다.

이번 사할린을 찾은 키도(KYDO)의 연령대는 13세부터 18세의 청소년들이다. 한국의 각 지역 오케스트라에서 두세 명 정도의 실력 있는 학생들이 선발되어 왔다. 일 년에 한 번 해외 공연을 나가는데 그곳이 바로 러시아 사할린이 되었다. 연습실에서 분주히 통역하느라 앉아 있을 시간도 없는 이옥분 씨는 매 공연마다 양국 지휘자의 입이 되어 협연을 위한 까다로운 통역을 맡고 있다.

이옥분씨는 "이번에 키도31명과 교사 및 관계자 10명이 왔다. 올해는 각기 청소년오케스트라를 후원하는 한국 마사회와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부 간에 이뤄진 협약에서 한국 키도 31명이 사할린에 왔으니, 9월에 한국으로 갈 사할린의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인원 31명을 보내기로 했다. 매해 한국을 다녀온 사할린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6명-10명 정도이지만 한국 합동공연의 일정을 따라 연습하고, 연주하고 돌아온 학생들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어 있었고, 학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4회째 맞는 한·러 청소년오케스트라의 합동공연을 열면서 누군가는 이러한 음악의 교류가 100년, 150년 지속되길 기원하는 만큼, 더 나아가 사할린의 각 지역에도 지역 청소년오케스트라가 결성되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 (박혜신)

[우리말로 깨닫다]

덮어놓고

싸울 때 보면 덮어놓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화를 내는지 이유도 안 가르쳐주고 소리부터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통은 소리부터 질러댑니다. 싸울 때 소리를 지르는 것은 하수(下手)의 일입니다. 동물도 쉰 동물은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저음(低音)은 쉰 동물의 특징이자 특권입니다. 덮어놓고 소리를 지르면 안 됩니다. 이유를 잘 설명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어서 <덮어놓고>라는 말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말에서 이 표현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는 덮어놓고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덮어놓고 대들기도 하고, 덮어놓고 울기부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덮어놓고 칭찬이나 사과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를 보면 <덮어놓다>는 '옳고 그름이나 형편 따위를 헤아리지 아니하다.' 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덮어놓고>라는 말은 무언가를 덮어놓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려놓았다는 의미죠. 그래서인지 <무조건>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유를 묻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덮어놓고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덮는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은 상대방의 사정은 듣지도, 알리고 하지도 않는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남의 사정을 덮어버리고 무조건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전후 사정이 있기 때문에 덮어놓으면 안 됩니다.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덮어놓고 울거나 덮어놓고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자신의 잘못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은 이 자리를 모면하자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나는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미안하다고 말하면 용서가 될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데 미안한 마음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운다고 해서 진심은 아닙니다. 눈물은 생각보다 쉽게 흐르기도 합니다. 눈물은 미안해서 흘리기도 하지만 억울해서 흐르기도 합니다. 덮어놓고 우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덮어놓고 칭찬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칭찬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하는 칭찬은 아부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칭찬은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람의 말을 잘 믿는 게 순수한 측면도 있지만 위험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믿는 게 나쁜 건 아니지요. 사람 간의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덮어놓고'에 있습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있는 것은 무엇까요? 맹목적인 믿음은 자신을 가둡니다. 아무리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세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맹신을 키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과학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덮어놓고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의심이 문제가 아니고, 덮어놓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말 <덮어놓고>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언지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뭘 덮어놓고 믿는 걸까요? 뭘 덮어놓고 있는 걸까요?

한편 덮어놓는 게 좋은 의미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덮어놓고 행동을 해야 할까요?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도울 때는 덮어놓고 해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절차를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박한 상황이니깐요? 옳고 그름을 따질 겨를도 없습니다. 내게 닥칠 해로움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뛰어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급박한 상황에서 이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미담(美談)은 <덮어놓고>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일이 따지고서는 이타적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후에 한 행동이라면 진정한 이타주의(利他主義)는 아니겠지요.

'덮어놓고'라는 말을 쓸 때마다 내가 지금 덮어놓은 것이 무언지, 이렇게 덮어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동안 제가 덮어놓은 일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의 수많은 허물도 생각이 나네요. 저에게 유리하게 덮어놓고 살아온 듯합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러시아 대학서 사용할 한국학 교과서 편찬된다

카잔연방대학교 '제5회 국제한국학 학술대회'서 한국학 교과서 개발 내용 발표

러시아연방 카잔의 카잔연방대학교 한국학연구소(소장 고영철)는 지난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본교에서 '제5회 국제한국학 학술대회'를 개최해 '한국학 교과서 편찬'에 대한 중간 점검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카잔연방대학교는 2016년 6월부터 한국교육부 사업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시행하고 있는 '따타르스탄 및 러시아 남부 지역의 한국학 교육·연구·확산 기반 구축' 연구 사업에 러시아와 한국의 연구자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연구 사업을 통한 결과 보고와 함께 한국학 저변 확대를 위해 국제한국학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한 학술대회에는 한국과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예카테린부르크와 볼고그라드,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에서 100여 명의 학자들이 참가해 그동안 러시아에서 한국학에 대해 연구해 온 결과물로서 한국학 교과서 개발을 위한 중간 점검의 시간을 가졌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문학, 한국경제 분야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학자들과 러시아 학자들의 공동연구 또는 단독연구를 통해 러시아 대학에서 가르쳐야 할 한국학 각 교과목의 목차와 내용이 결정돼 총 31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발표된 논문들은 논문집으로 발행됐으며, 러시아교육과학부의 인정을 받아 연구 업적에 기여하게 됐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한 카잔연방대 한국학연구소장 고영철 교수는 "학술대회가 지속되면서 연구의 수준 향상과 참가자가 지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이 참가해 차세대 한국학 학자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한 카잔연방대 한국학연구소장 고영철 교수는 "학술대회가 지속되면서 연구의 수준 향상과 참가자가 지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이 참가해 차세대 한국학 학자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술대회 참가해 축사와 특강을 맡은 주러시아연방 우윤근 대사는 양국 간 학술, 문화, 스포츠 분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협력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카잔연방대학교에는 2007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한국어센터와 한국어과정이 개설됐고, 2016년부터 6월부터는 한국학 연구기능을 추가해 한국학연구소로 개칭돼 운영되고 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Игры будут переданы в библиотеки, школы,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работы с детскими коллективами. Также педагоги могут обращаться за игрой в клуб по адресу: ул. Невельская, 14/2,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позвонив по телефону 28-79-70 (с 11 до 17), сообщает на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клуба "Бумеранг".

홈스크, 태권도 선수 120 명 이상이 힘을 겨루어보다

5월 6일 니콜라이 마피킨(소련의 명예사범)종합건강체육관에서 지역 태권도(국제태권도연맹) 공개시합이 조성되었다.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유즈노사할린스크(사범: 안수학, 에두아르트 나자로브, 최 세르게이), 체호브(김 베체슬라브), 토마리(올레그 자이킨)에서 선수들이 왔다. 일린스코에 구역팀은 처음 경기에 출전했다. 이들은 올레그 자이킨 사범의 제자이다. 신 세르게이와 빅토르 로마노브 지도로 훈련을 받는 홈스크 선수들과 함께 노란띠 분야에서 120명 이상의 태권도 선수들이 시합에 참가했다.

홈스크 체육·스포츠·청소년 정책부 전문가들과 태권도 사범들의 공동의견에 따르면 수준 높은 경기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각 체급별에서 우수 성적을 받은 선수들에게는 <완성의 길> 지방사회스포츠 단체가 수여하는 트로피와 메달로 시상했다.

Более 120 тхэквондистов померились силами в Холмске

6 мая в холмском физкульту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имени заслуженного тренера СССР Николая Мамыкина состоялось открытое первенство района по тхэквондо МФТ.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иехали спортсмены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ренеры Ан Сухаги, Эдуард Назаров, Сергей Че), Чехова (Вячеслав Ким), Томари (Олег Зайкин). Впервые участвовала команда из села Ильинского. Это тоже воспитанники Олега Зайкина. Вместе с холмчанами, тренирующимися у Сергея Сина и Виктора Романова, на турнире по программе желтых поясов выступили более 120 тхэквондистов.

По мнению специалистов холм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спорту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е и наставников тхэквондистов,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шли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Добившиеся в своих весовых категориях наилучших результатов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кубками и медалями от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спортив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уть к совершенству".

2018 년 초, 2 개월간 사할린 주 신생아 출생 969 명

사할린 주 1월-2월 시기 기준으로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있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는 산모 11명의 쌍둥이 출산을 포함하여 출생아수는 969명, 사망자수는 1007명이 등록되었다. 2017년 같은 시기에 자연인구 37명이 감소한 것과 유사하게 자연인구수는 38명으로 감소했다. 아니와·노글리키·스미르니호·유즈노쿠릴스크 구역, 유즈노사할린스크 총 5개의 지방자치체에서 출생아 수가 사망자수보다 많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2017년 유사시기에 사할린 주에 혼인은 461건, 이혼은 459건이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혼인은 391건, 이혼은 428건이 등록되었다.

러시아 내무부 사할린주 이민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1월-2월기간 동안 사할린과 쿠릴열도로 이주한 인구는 2939명으로 그중에 53%가 영주권을 가지고 체류하고 있다. 3194명이 거주지를 이전했고 그중 74%는 이전의 거주지등록에서 말소되었다.

사할린 주내에서는 1297명이 거주지를 이전했으며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인구수는 255명으로 감소했다.

За первые два месяца 2018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явились на свет 969 детей

За январь-феврал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чена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населени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в органах ЗАГС 969 родившихся, в том числе 11 многоплодных родов (двойни), и 1007 умерших.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составила 38 человек,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17 года убыль составляла 37 человек. Превышение числа родившихся над числом умерших отмечено в пят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ласти: Анивском, Ногликском, Смирныховском,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391 брак и 428 разводов против 461 брака и 459 развод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17 года.

По данным управле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миграции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январь-февраль на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прибыли 2939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53% —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ыбыло 3194 человека, из которых 74% снято с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го учета по прежнему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В предел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еняли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1297 человек.

Миграционная убыль составила 255 человек.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Ресторан "Гагарин"

Шведский стол (будние дни) с 12.00 -15.00

Юбилеи, свадьбы, дни рожд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явке) с 18.00-24.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133 тел.: 49-84-02

реклама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mun"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 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mun»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mun»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mun»,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